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1일 (금) 11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의사보고
-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3.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 4.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 5.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 5분 자유발언(이옥규 의원)

상정된 안건

- 의사보고 2면
-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 2면
- 2.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제안)(의안번호 87) 3면
- 3.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 제안)(의안번호 88) 5면
- 4.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 7면
- 5.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안)(의안번호 82) ... 10면
- 5분 자유발언(이옥규 의원) 11면

(11시 02분 개의)

○의장 노금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보고

(11시 02분)

○총무담당관 김미희 총무담당관 김미희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가 제안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소관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신영호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이옥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89)

(11시 04분)

○의장 노금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해당 안건은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중 연합정책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연합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제안)(의안번호 87)

(11시 05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 김선광 존경하는 560만 충청권 시도민 여러분!

노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024년 12월 18일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날입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4개 시도가 힘을 모아 560만 충청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적인 협력체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협의체를 넘어서 초광역 단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은 광역철도 및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과 함께 문화·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과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초기인 현재 행정적·재정적 기반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선 충분한 물과 먹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제 막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초광역 행정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라는 영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5년도 충청광역연합 예산은 총 56억이며, 전액을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부담 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초광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협력계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충청광역연합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210조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초광역 사무를 다루는 전문적인 의정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발생 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 또한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들은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국가적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시급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 제2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고, 전국 초광역 협력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본 연합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5분 발언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조속한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교부세 수혜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초광역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에게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해 주십시오.

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의체’를 설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정책·재정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김선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 제안)(의안번호 88)

(11시 12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조성된 세종특별자치시가 여전히 불완전한 행정수도의 지위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 개정, 대통령 집무실 기

능 강화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국가의 핵심 중추 기능을 서울 이남으로 재배치하고,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했으나 실행행정수도의 명칭과 기능을 헌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안타깝게도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에서 완전히 이전되지 못한 채 행정수도가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국정 이원화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국가 자원의 이중 낭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불완전한 위상 등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었고, 이에 더해 수도권 집중은 점점 가속화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의 다양한 혁신 방향과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고관세,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저성장과 경쟁력 약화로 반전의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소멸 위기와 함께 지역의 다양성과 혁신의 성장 동력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조차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최대의 국민 관심사이자 신속히 추진해야 할 국정 현안이다.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현 정부에서 어떻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의 결과가 대한민국은 물론 지방의 발전과 국민들의 미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사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충청권의 민심을 얻기 위해 내놓았던 해묵은 행정수도 완성,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과거의 관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지위의 법률적·행정적 한계를 넘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수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헌을 통한 헌법적 기반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이는 인구 50만 미만의 또 다른 지방 도시와 유사하게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권 블랙홀을 해결하는 지방 발전의 거점도시로서, 나아가 국가 행정수도의 도시로서 그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기조 아래 신속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개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실 전

담 비서관 지정 및 중앙 부처, 국회 TF 팀 구성·운영 등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과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한다.

하나, 본원 형태의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되지 않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전 이전과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가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안에 제정하라.

하나, 종전 위헌 판결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행정수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행정수도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라.

하나,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실질화를 위해 금년에 실시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설계 규모를 청와대 규모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완공하라.

하나, 행정수도 완성의 신속한 추진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과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TF 팀을 구성 및 운영 하라.

2025년 7월 11일 충청광역연합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김광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신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

(11시 20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의원** 존경하는 560만 충청인 여러분!

노금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선조인의 지혜를 담은 충남 서천 출신 신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국가 행정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응하며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에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이 지시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수도권 집중과 다름없는 지역 편중 행정의 연장선이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만의 과제가 아니라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10대 국정 과제였고, 또한 국가의 미래 발전 전략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정책은, 삼면이 바다인 동해·서해·남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행정의 정책에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삼면인 바다인 대한민국은 삼면의 바다를 중심으로 함께 아우르는 해양·수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쏠림은 편향이 되고 편향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특정 지역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행정기관 이전에 있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저버리는 일방적 방침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에 30년 넘게 자리해 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의 사천으로 이전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에 있습

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초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역 갈등이 번지고 있으며, 국가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발전 체계 자체를 흔드는 등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권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하겠습니다.

하나,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이전 논의를 즉각 종식시키고,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준수하라.

이상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함께 의결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연합장 제안)(의안번호 82)

(11시 26분)

○의장 노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형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거쳐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광역연합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노금식 구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영환 연합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합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장 김영환** 존경하는 노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회 임시회 기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략 산업 분야 모빌리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초광역협력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종의 완성 청주국제공항 전용 활주로 신설 등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금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노금식** 김영환 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옥규 의원)

(11시 30분)

○ **이옥규 의원** 충청북도 청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거점 중심 성장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과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에 인구, 산업, 행정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고 충북혁신도시, 충남의 내포신도시 등을 포함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개발하여 총 153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서 2019년 기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하는 등 정책 입안 시 추구했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산업·행정·인프라 중심에 머물렀을 뿐 재정, 금융, 교육 등 핵심 요소에 대한 지역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된 세종시의 경우만 살펴봐도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특별자치시’라는 명칭만 있을 뿐 재정이나 교육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없이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과 지역 산업, 교육, 생활문화와 화학적 결합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확립하고 앞으로의 정책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이 체제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실제 지방 현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그동안 부울경 행정통합에 반대했던 울산도 긍정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여서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 하고 있으며, 얼마 전 개최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첨예한 지역 현안을 두고 소속 단체장이 대통령 앞에서 과감하게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작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새 정부가 '실용'을 내세워 하루가 24시간인 것을 아쉬워하며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청권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만 의존한 채 공공기관 이전과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지원에 기대하는 안일한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의 내용을 재점검하고, 재정·금융·교육·문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청권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충청권은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충청권 메가시티가 충청권 주민들의 삶에 어떤 막연한 지방분권과 지역 소멸만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균형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난번 추진했던 정책처럼 단지 자원의 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와 인재 기반을 키우는 전략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충청광역연합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충청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금식 이옥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충청광

역연합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미옥 박란희 신영호
안치영 이옥규

○청가 의원(6인)

김현미 박주화 안경자 유인호 이한영 조성태

○의회사무처

처 장 이재만
총 무 담 당 관 김미희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 합 장 김영환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 광 역 자 치 과 장 박승일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이철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광역연합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란희 신영호 안치영
이옥규

2.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란희 박미옥 신영호
안치영 이옥규

3.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란희 박미옥 신영호
안치영 이옥규

4. 해양수산부·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8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미옥 신영호 이옥규

찬성의원(2인)

박란희 안치영

5.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노금식 박란희 박미옥 신영호
안치영 이옥규